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2012년 9월 pp.249~279
한국세무학회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무보고품질 사이의 관계*

노희천** · 임규한*** · 전영준****

<요 약>

최근 수년간 상장법인 중 일부기업이 공시시한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재무제표 신뢰성 및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진과 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 및 감사업무를 사실상 완료한 날인 감사보고서일에 대한 정보 즉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정보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보고와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일과 결산일간의 시차인 감사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한편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간에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감사현장 철수일 이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확보, 감사조서의 작성 및 내부심리 등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사인의 추가 감사시간이 일정수준 발생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나,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공시의 적시성을 훼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공시가 의무화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시차, 감사보고서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시차 및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모두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량적 발생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감사의견 형성을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이후의 감사보고서 공시지연은 경영진과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보고지연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영진과의 의견불일치 해소를 위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더라도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을 감소시키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 정도가 중요한 수준에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감사인의 노력이 재량적 이익조정행위에 대하여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지 못함을 보여준다.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입니다.

** 숭실대학교 조교수, rhc0401@ssu.ac.kr, 02-820-0541, 교신저자

*** 숭실대학교 박사, 공인회계사, khlim@wooricpa.co.kr, 02-3453-5985, 제1저자

**** 숭실대학교 박사과정, everjune@hanmail.net, 02-820-0584, 공동저자

이는 우리나라 회계감사인들이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의 증대와 이익조정가능성에 대하여 보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감사보고서 발행시 더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행위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는 중요한 정보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더 강화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이용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감사인 규모에 따른 추가 분석결과에서는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의 분석결과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audit quality)이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국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재무보고품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감사보고서일과 결산일간의 시차인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반면에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간의 차이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재무보고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발행시차, 감사시차, 재무보고품질, 감사보고서, 재량적 발생액

I. 서 론

최근 수년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중 일부기업이 감사보고서 공시시한을 위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¹⁾ 실제로 2009년 결산법인의 경우에 공시시한을 위반한 기업의 수가 56개에 달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6개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31개가 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되었다.²⁾ 이러한 현상은 경영진과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 및 감사업무를 사실상 완료한 날인 감사보고서일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정보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

1)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최소한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한편 한국거래소 2010년 3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5사중 29사(83%)가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 전)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일간의 차이 일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2003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종료되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구, 상장법인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구,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이는 감사업무가 종료되어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면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정보가 사실상 확정되므로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일(audit report date)과 감사보고서의 공시일(audit report disclosure date)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⁴⁾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일이란 “회계감사인이 의견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감사를 종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⁵⁾ 실무적으로는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일이 되는 감사보고서일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업의 감사현장에서 감사업무를 종료한 날을 감사보고서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사인은 감사현장 철수일 이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확보, 감사조서의 작성 및 내부심리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의 공시일간에는 시차가 존재하며, 이는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발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나,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과의 시차는 이익공시의 적시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공시지연으로 투자자들은 사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Dyer and McHugh(1975)는 감사보고 지연이 감사인과 기업간의 의견불일치(auditor-client disagreements), 은행조회서나 채권채무조회서의 늦은 회신이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다. Maria et al.(2007)은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기업간의 협상의 산물로 정의하고, 감사인은 중요한 재무제표의 왜곡을 막는 동시에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의 공시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은 감사인과 기업간의 협상의 지연에 따른 산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사보고 지연이 재무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감사보고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일과 결산일간의 시차인 감사시차(audit report lag)

- 3)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 상장법인공시규정을 대체한 규정이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을 대체한 규정이다.
- 4) 감사보고서 공시일은 기업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여 금융감독원의 DART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최초로 공개되는 시점이다.
- 5) 회계감사기준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참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다(Ashton et al. 1987, 1989, Bamber et al. 1993, 김평기 1996, 나종길과 최기호 2004). 또한, 감사시차를 감사보고서 적시성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으며 이익공시 적시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고하였다(Givoy and Palmon 1982, Dopuch et al. 1986, Loudder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용된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시차와 감사보고서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시차 및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간의 차이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회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을 재무보고품질의 대용치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는 감사인이 기업현장감사에서의 감사업무에 추가적으로 투입한 감사노력(audit effort) 또는 감사투입(audit inputs)에 대한 대용치가 된다. 감사시차는 결산일로부터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누적일수로 계산되며, 공시일 기준 감사시차는 결산일로부터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누적일수로 계산되고,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는 감사보고서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의 누적일수로 계산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감사보고서일, 감사보고서 공시일 등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감사시차 및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인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기간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감사인의 추가적인 정상적 노력투입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의도적인 비협조 또는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경영자가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영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나종길과 최기호 2004). 회계발생에 대한 재량적 조정행위가 경영자의 이기적 행동의 결과라면 회계발생은 이익조정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감사범위를 확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영자와 의견이 불일치하여 감사보고를 확정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는 증가할 것이다. 과도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는 경영자와의 의견불일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재무제표는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최선의 협상의 결과물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차가 증가한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공시가 의무화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시차, 감사보고서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시차 및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만약 감사보고서일 및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시차와 재량적 발생액이 정(+)의 관계를 보인다면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하더라도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나,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면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재량적 발생액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면 이는 경영자가 이익조

정을 한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여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하고,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협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결국 일정 수준에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익조정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량적 발생액이 음(-)의 관계를 보인다면 이익조정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위험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평가가 감사인의 노력을 증가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감사보고서일과 결산일간의 시차인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시차 및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재무보고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설계로서 연구모형의 제시, 변수의 측정과 정의 및 표본의 선정과정을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및 추가분석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며, 제Ⅴ장에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을 기술한다.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1. 감사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감사인의 특성으로 회계감사인의 규모, 회계감사인이 이용하는 감사기법의 정형화된 정도 등을 제시하였다(Ashton et al. 1987, 1989, Bamber et al. 1993). 그리고 감사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으로는 매출규모, 기업규모, 감사복잡성, 내부통제수준, 총자산, 산업특성, 특별손익항목의 존재여부 등이 제시되었다.⁶⁾

Bamber et al.(1993)은 선행연구를 보다 발전시켜 감사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기까지 필요한 감사범위가 감사시차와 정(+)의 관계를 갖는다. 감사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감사복잡성, 영업위험 및 기타업무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사업의 다양성 및 업종의 특성은 감사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기업의 소유집중도와 재무건전성은 영업위험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당기순손실여부, 특별손익항목 존재여부 등은 기타업무요인을 대리하는 변수로 정의하였다. 감사복잡성 및 영업위험은 감사위험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인 고유위험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감사범위가 확대되어 감사시차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과 특별손익항목을 보고한 기업은 감사의견형성에 중요한 판단기

6) 감사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Bamber et al.(1993)와 김평기(1996)의 연구를 참조.

준인 중요성 기준을 강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감사범위를 확대하게 되고 감사시차는 증가한다. 둘째, 기업의 경영진이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가지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감사시차와 음(-)의 관계를 가진다. 이 경우 재무보고 적시성의 동기를 대리하는 변수로 기업규모와 비기대이익을 이용한다. 셋째, 감사기술의 형태에 따라 감사시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감사인의 감사기술을 정형화된 감사기술과 비정형화된 감사기술로 구분하고 비정형화된 감사기술에 의존할수록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취하게 되므로 감사시차가 증가한다. 연구결과, 사업의 다양성변수와 비기대이익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위와 같이 예측한 결과로 나타났다.

나종길과 최기호(2004)는 회계발생의 심화성(accrual intensity)으로 측정한 회계발생의 크기가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계발생의 심화성으로 측정한 회계발생과 감사시차가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종성 등(2011)은 감사보고서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시차로 측정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감사보고서상에 특기사항이 포함되었을 때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박종성 등(2011)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에 갈등요인이 존재할 때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2. 감사시간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권수영 등(2006)은 감사시간과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감사시간은 이익조정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초과감사시간은 이익조정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으며 이는 감사의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적정감사기간 대비 초과감사시간을 투입할 경우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Lennox and Greece(2006)는 감사시간과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감사품질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감사인이 많은 노력을 투입하면 경영자의 이익과대계상을 억제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감사시간 이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비정상 감사시간(abnormal audit hours)을 추정한 다음, 비정상 감사시간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과대계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스(Greece)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예측대로 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많을수록, 즉 비정상 감사시간이 클수록 이익의 과대계상 현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시간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인 이익의 과소계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상혁 등(2005)은 감사가 엄격하게 행하여질 경우 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여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재량적 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 감

사시간을 설명변수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단측검증에서는 10% 수준에서 양자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그리 유의수준이 높지 않았다.

박종일과 최 관(2006)은 감사시간을 정상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으로 구분하고 비정상감사시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비정상감사시간이 매우 큰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경우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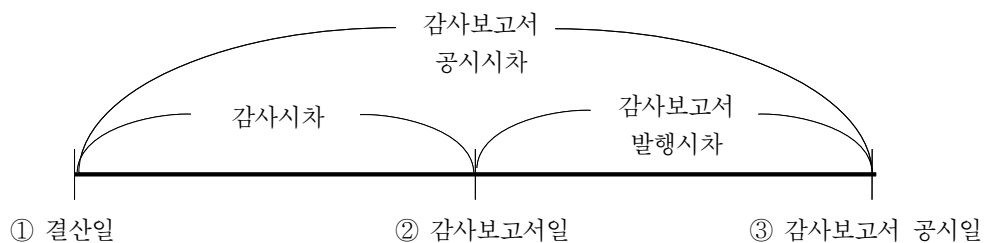
Tamara A. et al.(2007)은 감사보고지연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전년보다 감사보고일이 늦어지는 경우 즉 감사노력이 증가하는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감사시차(결산일과 감사보고서일 간의 시차 또는 결산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 간의 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반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감사시차가 재무보고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는 데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된다.

3.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이 감사보고서의 공시이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을 기본자료로 정상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으로 구분하고 비정상감사시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비정상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낮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⁷⁾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감사시간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보고서의 제출 이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등을 최초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보고서일, 감사보고서 공시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시차 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감사보고서 공시시기



7)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은 사업보고서상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2003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종료되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가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되는 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보고서일은 회계감사인이 의견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한 날로 정의되나, 실무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이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해당 기업의 감사현장에서 감사업무를 종료하는 날을 감사보고서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보고서 공시일은 감사인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보고서를 기업에게 전달한 날이며 동일자에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게 된다.⁸⁾

만약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시점인 감사보고서일까지의 시차인 감사시차가 재량적 발생액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면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하더라도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나,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면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될지는 사전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노력의 대용치인 감사시차와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감사시차는 이익조정과 관련이 없다.

감사인은 감사현장 철수일 이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증거의 확보, 감사조서의 작성 및 내부심리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즉,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의 차이로 나타난다. 감사인이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하게 얻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인 감사보고서일 이후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기간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감사인의 추가적인 정상적 노력투입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의도적인 비협조 또는 의견불일치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만약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재량적 발생액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면 이는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한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감사인이 노력이 증가하더라도 경영자와 감사인 양측이 일정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이익조정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회계발생이 음(-)의 관계를 보인다면

8) 논의의 편의상 <그림 1>에서 첫째, ① 결산일과 ② 감사보고서일의 차이일수, 즉 결산일로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의 누적일수를 감사시차로 정의한다. 그리고 ① 결산일과 ③ 감사보고서 공시일과의 차이일수, 즉 결산일로부터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누적일수를 감사보고서 공시시차로 정의하고, ② 감사보고서일과 ③ 감사보고서 공시일과의 차이일수, 즉 감사보고서일로부터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누적일수를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익조정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위험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평가가 감사인의 노력을 증가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될지는 사전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는 이익조정과 관련이 없다.

Ⅲ. 연구모형 및 표본

1. 연구모형

다변량 횡단면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일관성이 있게 재량적 발생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식(1)은 감사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또한 식(2)는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begin{aligned} \text{회귀모형 : } DA_{it}(ABSDA_{it}) = & \beta_0 + \beta_1 rdate_{it} + \beta_2 Inasset_{it} + \beta_3 cfod_{it} \\ &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ta1 + IND + DY + e \end{aligned} \quad \text{식(1)}$$

$$\begin{aligned} \text{회귀모형 : } DA_{it}(ABSDA_{it}) = & \beta_0 + a_1 dfdate_{it} + \beta_2 Inasset_{it} + \beta_3 cfod_{it} \\ &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ta1 + IND + DY + e \end{aligned} \quad \text{식(2)}$$

여기서, DA_{it} : i기업의 t기 재량적 발생액/기초총자산 ($ABSDA_{it}$: DA의 절대값)

$rdate_{it}$: i기업의 t기 감사시차

$dfdate_{it}$: i기업의 t기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Inasset_{it}$: i기업의 t기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og(asset_{it})$)

$cfod_{it}$: i기업의 t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lev_{it} : i기업의 t기 부채총액/기초총자산

roa_{it} : i기업의 t기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ta1_{it}$: i기업의 t기 전기 총발생액

IND : 산업별 더미변수

DY : 연도별 더미변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은 추정 표본을 대상으로 산업별-연도별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비재량적 발생액의 기대치를 측정하고, 실제 발생액에서 비재량적 발생액의 기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산업 구분은 KIS-Value의 KSIC 산업분류 중 중규모 분류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2004

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동안의 산업별-연도별 구성은 총 343(산업/연도)이다. 식(3)의 계수 추정을 위하여 직전 10년간의 동종 산업별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회귀계수 값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회귀계수들을 이용하여 개별 기업들에 대해 식(4)을 적용하여 개별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은 분석대상기간 중 매년 재 추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경영성과에 따른 비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에 총자산수익률(ROA)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frac{TA_t}{A_{t-1}} = \beta_0 \frac{1}{A_{t-1}} + \beta_1 \frac{(\Delta REV_t - \Delta AR_t)}{A_{t-1}} + \beta_2 \frac{PPE_t}{A_{t-1}} + \beta_3 ROA_t + \epsilon_t \quad \text{식(3)}$$

$$DA_t = \frac{TA_t}{A_{t-1}} - [\hat{\beta}_0 \frac{1}{A_{t-1}} + \hat{\beta}_1 \frac{(\Delta REV_t - \Delta AR_t)}{A_{t-1}} + \hat{\beta}_2 \frac{PPE_t}{A_{t-1}} + \hat{\beta}_3 ROA_t] \quad \text{식(4)}$$

여기서, TA_t / A_{t-1} : t년의 총 발생액(= $(NE_t - CF_t) / A_{t-1}$)

ΔREV_t : t년의 매출액 변화

ΔAR_t : t년의 매출채권 변화

PPE_t : t년의 설비자산

ROA_t : t년의 총자산이익률

A_{t-1} : t-1년의 총자산

DA_t : t년의 재량적 발생

2. 표본의 선정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⁹⁾

- (1)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장을 유지한 기업
- (2)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
- (3)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 (4)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 (5)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 자료가 입수 가능한 기업

상장연령이 회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장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였으며, 산업특성과 결산일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조건(2)와 (3)을 추가하였다. 조건(4)는 감사의견이 회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9) 감사보고서 제출공시가 의무화된 시점은 2003년이나 전년도 대비 변동분 분석을 위해서 2003년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함이다. 비적정의견인 경우 재무자료 자체의 신뢰성문제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표본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DART에서 수집(hand collecting)하였다.¹⁰⁾

상기 (1)에서 (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총 7,928(기업/연도) 표본 중에서 실제 분석에 활용된 6,048(기업/연도) 표본에 대한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설 검증에 활용된 표본의 구성

내 용	해당표본(기업/연도)
기준에 부합하는 총 표본	7,928
감사시차가 15일 미만이거나 83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0인 경우	(1,730) ¹¹⁾
KIS-Value를 통해 수집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48)
상장관리 및 코스닥관리 기업인 경우	(25)
r-student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는 경우	(77)
최종표본	6,048

감사시차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정상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¹²⁾ 따라서 동 기한 일주일 전을 정상적인 감사보고서 공시시한으로 보고 이 기한까지 감사업무를 사실상 종료하지 못하여 동 기한을 초과하여 감사보고서일을 기재한 표본 즉 감사시차가 83일 초과하는 표본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0인 경우는 의견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감사증거 확보일을 감사보고서 공시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표본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상장관리종목 및 코스닥관리종목을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극단치 조정을 위해 r-student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는 경우를 표본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10) 감사보고서일 및 감사보고서 공시일 자료는 정정공시로 인하여 최초 공시일과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시한 자료를 적정자료로 판단하여 최종 공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1) 발행시차가 0인 경우 : 356 기업/연도, 감사시차가 15일 미만이거나 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1,374 기업/연도.

12)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감사보고서일 및 공시일의 연도/시기별 표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¹³⁾

<표 2> 표본의 분포

[Panel A]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의 표본분포								
기간\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1기간 (1-7일)	38 (4%)	28 (3%)	140 (15%)	149 (17%)	165 (20%)	238 (29%)	281 (39%)	1,039 (17%)
2기간 (8-14일)	133 (14%)	103 (11%)	152 (17%)	167 (19%)	171 (20%)	165 (20%)	112 (15%)	1,003 (17%)
3기간 (15-21일)	227 (24%)	192 (21%)	165 (18%)	170 (19%)	168 (20%)	142 (17%)	99 (14%)	1,163 (19%)
4기간 (21-28일)	219 (24%)	257 (28%)	172 (19%)	169 (19%)	142 (17%)	109 (13%)	98 (13%)	1,166 (19%)
5기간 (29-35일)	145 (16%)	188 (20%)	174 (19%)	100 (11%)	110 (13%)	89 (11%)	62 (9%)	868 (14%)
6기간 (36-42일)	93 (10%)	100 (11%)	76 (8%)	86 (10%)	46 (5%)	52 (6%)	44 (6%)	497 (8%)
7기간 (43-49일)	50 (5%)	40 (4%)	33 (4%)	30 (3%)	22 (3%)	21 (3%)	21 (3%)	217 (4%)
8기간 (50-56일)	16 (2%)	19 (2%)	7 (1%)	7 (1%)	12 (1%)	7 (1%)	8 (1%)	76 (1%)
9기간 (57-63일)	5 (1%)	3 (0%)	2 (0%)	1 (0%)	1 (0%)	1 (0%)	2 (0%)	15 (0%)
10기간 (64-70일)	2 (0%)	1 (0%)	0 (0%)	0 (0%)	1 (0%)	0 (0%)	0 (0%)	4 (0%)
합계	928 (100%)	931 (100%)	921 (100%)	879 (100%)	838 (100%)	824 (100%)	727 (100%)	6,048 (100%)

13) <표 2>의 [Panel A]는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기간을 7일 기준으로 구분한 분포표이며 시작기간부터 7일씩 증가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Panel B]는 감사보고서일자가 속한 날 90일을 7일 기준으로 주차로 구분한 분포표이고 표본이 존재하지 않는 1, 2, 13주차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Panel C]는 [Panel B]와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공시일자가 속한 주차로 구분한 분포표이며, 표본이 존재하지 않는 1, 2, 3주차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표 2〉 표본의 분포 (계속)

[Panel B] 감사보고서일자의 연도/시기별 표본분포								
주차\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3주차	46 (5%)	53 (6%)	21 (2%)	6 (1%)	8 (1%)	4 (0%)	11 (2%)	149 (2%)
4주차	112 (12%)	117 (13%)	59 (6%)	47 (5%)	22 (3%)	30 (4%)	66 (9%)	453 (7%)
5주차	222 (24%)	120 (13%)	130 (14%)	135 (15%)	68 (8%)	79 (10%)	23 (3%)	777 (13%)
6주차	55 (6%)	225 (24%)	173 (19%)	56 (6%)	118 (14%)	129 (16%)	70 (10%)	826 (14%)
7주차	175 (19%)	182 (20%)	186 (20%)	175 (20%)	168 (20%)	69 (8%)	123 (17%)	1078 (18%)
8주차	197 (21%)	149 (16%)	108 (12%)	151 (17%)	146 (17%)	136 (17%)	102 (14%)	989 (16%)
9주차	69 (7%)	53 (6%)	111 (12%)	144 (16%)	136 (16%)	146 (18%)	88 (12%)	747 (12%)
10주차	43 (5%)	22 (2%)	82 (9%)	109 (12%)	114 (14%)	151 (18%)	130 (18%)	651 (11%)
11주차	8 (1%)	7 (1%)	42 (5%)	46 (5%)	51 (6%)	73 (9%)	102 (14%)	329 (5%)
12주차	1 (0%)	3 (0%)	9 (1%)	10 (1%)	7 (1%)	7 (1%)	12 (2%)	49 (1%)
합계	928 (100%)	931 (100%)	921 (100%)	879 (100%)	838 (100%)	824 (100%)	727 (100%)	6,048 (100%)

〈표 2〉 표본의 분포 (계속)

[Panel C] 감사보고서 공시일자의 연도/시기별 표본분포								
주차\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4주차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5주차	7 (1%)	2 (0%)	3 (0%)	0 (0%)	0 (0%)	1 (0%)	1 (0%)	14 (0%)
6주차	4 (0%)	7 (1%)	5 (1%)	2 (0%)	4 (0%)	6 (1%)	5 (1%)	33 (1%)
7주차	35 (4%)	26 (3%)	25 (3%)	14 (2%)	12 (1%)	27 (3%)	18 (2%)	157 (3%)
8주차	78 (8%)	76 (8%)	60 (7%)	59 (7%)	34 (4%)	33 (4%)	42 (6%)	382 (6%)
9주차	137 (15%)	119 (13%)	93 (10%)	80 (9%)	72 (9%)	94 (11%)	72 (10%)	667 (11%)
10주차	316 (34%)	293 (31%)	268 (29%)	172 (20%)	182 (22%)	285 (35%)	222 (31%)	1,738 (29%)
11주차	271 (29%)	292 (31%)	319 (35%)	346 (39%)	335 (40%)	264 (32%)	267 (37%)	2,094 (35%)
12주차	62 (7%)	93 (10%)	123 (13%)	183 (21%)	181 (22%)	99 (12%)	92 (13%)	833 (14%)
13주차	18 (2%)	23 (2%)	25 (3%)	22 (3%)	18 (2%)	15 (2%)	8 (1%)	129 (2%)
합계	928 (100%)	931 (100%)	921 (100%)	879 (100%)	838 (100%)	824 (100%)	727 (100%)	6,048 (100%)

[Panel A]의 경우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의 표본분포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을 기점으로 1, 2기간(14일) 이내의 표본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2기간(14일) 이상에 해당하는 표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Panel B]의 경우 감사보고서일자의 연도/주차 표본분포를 나타낸다. 206년과 2007년을 기점으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를 나타내는 [Panel A]의 경우와 반대로 감사보고서일자가 8주차 이내에 속해있는 표본은 감소하고, 9주차 이상에 해당하는 표본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보고서가 실제로 공시되는 시기에 따른 표본 분포를 나타내는 [Panel C]의 경우, 4주차 이내의 표본은 거의 없으며, 5주차에서 8주차 이내의 표본이 연도가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V. 실증분석결과

1.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다음의 <표 3>은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주요 관심변수로서 감사시차를 나타내는 감사시차(rdate) 변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8.2일,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를 나타내는 변수인 감사보고서발행시차(dfdate)는 약 21.3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감사보고서일과 공시일간의 차이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의 최대 차이일수가 68일이다.¹⁴⁾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DA	0.000	0.104	-1.338	-0.048	0.004	0.052	0.792
ABSDA	0.071	0.078	0.000	0.023	0.050	0.092	1.338
TA	-0.039	0.167	-4.177	-0.080	-0.021	0.032	0.585
TA1	-0.038	0.235	-8.223	-0.079	-0.022	0.032	1.909
rdate	0.482	0.143	0.150	0.370	0.480	0.590	0.810
dfdate	0.213	0.127	0	0.120	0.210	0.300	0.680
lnasset	14.074	1.469	8.498	13.089	13.782	14.788	20.573
lnsales	13.880	1.624	6.906	12.826	13.726	14.725	20.615
cfod	0.050	0.119	-0.903	-0.008	0.047	0.107	1.311
lev	0.475	0.294	0.001	0.280	0.452	0.626	7.043
roa	0.012	0.187	-5.080	0.003	0.036	0.080	0.759

주1) 변수의 정의

DA : 재량적 발생액/기초총자산 (ABSDA : DA의 절대값)

TA : 당기총발생액, TA1 : 전기총발생액

rdate : 감사시차

dfdate :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lnasse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nsales : 당기 매출액의 자연로그 값

cfo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lev : 부채총액/기초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2) rdate, dfdate, ddfdate, drdate : 실제분석에서는 단위조정을 위해 100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음

14) 감사시차,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및 감사보고서 공시시차의 전년대비 변동분과 재량적 발생액(DA) 및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DA)과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의 변동분을 산출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4>는 각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DA)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 DA)을 기준으로 주요 관심변수인 감사시차(rdate)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재량적 발생액(DA)의 경우, 피어슨 분석에서는 0.027로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스피어만 분석에서는 0.035로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심변수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와 재량적 발생액(DA)의 경우 피어슨분석에서는 -0.01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스피어만 분석에서도 -0.011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4>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DA	ABS DA	TA	TA1	rdate	dfdate	lnasset	lnsales	cfod	lev	roa
DA		-0.259***	0.712***	0.070***	0.027**	-0.019	0.021	0.002	-0.665***	-0.021	0.212***
ABS DA	0.032**		-0.421***	-0.184***	0.003	0.052***	-0.134***	-0.110***	0.025*	0.284***	-0.360***
TA	0.737***	-0.011		0.180***	-0.039***	-0.035***	0.161***	0.188***	-0.176***	-0.157***	0.780***
TA1	0.042***	-0.042***	0.206**		-0.010	-0.031**	0.090**	0.119**	-0.025*	-0.106***	0.145***
rdate	0.035***	0.004	-0.030**	-0.001		-0.786***	-0.016	-0.055***	-0.095***	0.062***	-0.095***
dfdate	-0.011	0.037***	-0.025**	-0.035***	-0.790***		-0.124***	-0.099***	0.013	-0.021	-0.023*
lnasset	0.014	-0.133***	0.165***	0.133***	-0.007	-0.138***		0.905***	0.133***	0.158***	0.228***
lnsales	-0.015	-0.078***	0.159***	0.125***	-0.054***	-0.100***	0.886***		0.202***	0.199***	0.296***
cfod	-0.729***	-0.068***	-0.452***	-0.007	-0.104***	0.014	0.135***	0.203***		-0.015	0.479***
lev	0.082***	0.126***	-0.015	-0.018	0.077***	-0.037***	0.210***	0.294***	-0.091***		-0.149***
roa	-0.061***	-0.001	0.394***	0.132***	-0.146***	0.007	0.230***	0.293***	0.513***	-0.121***	

주1) 변수의 정의

DA : 재량적 발생액/기초총자산 (ABS DA : DA의 절대값)

TA : 당기총발생액, TA1 : 전기총발생액

rdate : 감사시차

dfdate :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lnasse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nsales : 당기 매출액의 자연로그 값

cfo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lev : 부채총액/기초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2) rdate, dfdate, ddfdate, drdate : 실제분석에서는 단위조정을 위해 100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음

3) 우측상단 : 피어슨 상관계수, 좌측하단 : 스피어만 상관계수

4)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5) 전체표본크기 : 6,048(기업/연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감사시차 및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관계의 경우, 이익조정 방향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익조정의 정도를 보고자 하는 바, 재량적 발생액(DA)에 절대값을 취한 변수(ABSDA)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DA) 변수와 감사시차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어슨 분석에서는 0.003의 양(+)의 관계를 나타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스피어만 분석에서도 0.004의 양(+)의 관계를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DA) 변수와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어슨분석에서는 0.052로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스피어만 분석에서도 0.037로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기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와 이익조정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회계발생에 대응하는 감사인의 노력투입에 근거한 시차의 증가에 더하여 경영자와의 협상지연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의 증가는 재량적인 이익조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여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은 양(+)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감사시차 및 발행시차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

<표 5>는 감사시차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1]은 종속변수를 재량적 발생액(DA)으로 설정한 분석결과를 나타내며, [모형2]는 종속변수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ABSDA)으로 설정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주요 관심변수인 감사시차를 나타내는 감사시차(rdate) 변수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음(-)의 방향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활용한 [모형2]에서 또한 감사시차(rdate)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1%수준에서 유의하다. 이것은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결산일과 감사보고서일과의 차이 일수가 길어질수록 이익조정의 정도 또한 보다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시차가 길어질수록 즉, 감사인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의 정도를 감소시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가설1을 기각하여 감사시차와 이익조정과 음(-)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총자산의 자연로그값(lnasset) 변수의 경우, [모형1]과 [모형2]의 방향이 모두 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변수는 [모형1]과 [모형2]에서 각각 음(-)과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모형1]에서는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1%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2]의 경우 [모형1]과 같이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1%수준에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총자산 수익률 변수(roa)의 경우에는, [모형1]에서 양(+)의 방향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계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모형2]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전기 총발생액(ta1)의 경우 [모형1]과 [모형2]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감사시차와 이익조정의 관계

$$\text{회귀모형 : } DA_{it}(ABSDA_{it}) = \beta_0 + \beta_1 rdate_{it} + \beta_2 Inasset_{it} + \beta_3 cfod_{it}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ta1 + IND + DY + e$$

구 분	[모형1] 종속변수 : DA	[모형2] 종속변수 : ABSDA	[모형3] 종속변수 : ABSDA DA가 음(-)인 경우	[모형4] 종속변수 : ABSDA DA가 양(+)인 경우
변 수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절편	0.041 (6.54)***	0.122 (12.86)***	0.000 (-0.03)	0.075 (9.54)***
rdate	-0.003 (-0.81)	-0.020 (-3.04)**	-0.005 (-0.85)	-0.010 (-1.88)*
lnasset	-0.001 (-2.27)**	-0.006 (-8.99)***	-0.001 (-1.42)	-0.002 (-4.54)***
cfod	-0.879 (-157.69)***	0.152 (17.94)***	0.762 (88.27)***	-0.657 (-62.99)***
lev	0.024 (11.71)***	0.063 (20.30)***	0.005 (1.66)*	0.035 (14.13)***
roa	0.396 (107.27)***	-0.167 (-29.91)***	-0.387 (-87.88)***	0.247 (35.03)***
ta1	-0.022 (-8.87)***	-0.028 (-7.39)***	0.009 (2.90)***	-0.024 (-7.66)***
표본크기	6,048	6,048	2,880	3,168
F 값	2,223.32***	165.33***	1,021.17***	396.08***
Adj. R ²	0.8152	0.2459	0.8096	0.5995

주1) 변수의 정의

DA : 재량적 발생액/기초총자산 (ABSDA : DA의 절대값)

rdate : 감사시차

lnasse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cfo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lev : 부채총액/기초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ta1 : 전기총발생액

IND : 산업별 더미변수

DY : 연도별 더미변수

2) rdate : 실제분석에서는 단위조정을 위해 100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음

3)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DY)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지만, 보고는 생략함

4) VIF 계수 : 전체 2미만

5) 표본크기(기업/연도) : 모형1(6,048), 모형2(6,048), 모형3(2,880), 모형4(3,168)

6)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추가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방향에 따라 이익조정과 감사시차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3]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음(-)인 경우의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이고, [모형4]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양(+)인 경우의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형3]과 [모형4]를 종합하여 보면, 재량적 발생액이 음(-)일 경우 감사시차 변수(rdate)의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재량적 발생액이 양(+)인 경우는 감사시차 변수(rdate)의 회귀계수가 10% 유의수준에서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의견을 형성하기까지의 기간인 감사시차가 길어질수록 즉,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품질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다만, 이익조정이 음(-)인 경우에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이는 음(-)의 이익조정의 경우보다 양(+)의 이익조정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위험 평가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에 따라 보다 보수적인 접근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감사시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가설1을 기각하여 감사시차와 재무보고품질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은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를 포함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1]은 종속변수를 재량적 발생액으로 설정한 분석결과를 나타내며, [모형2]는 종속변수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설정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주요 관심변수인 감사보고서일과 공시일의 차이 즉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 변수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양(+)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활용한 [모형2]에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 변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것은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감사보고서일과 공시일의 차이 일수가 길어질수록 이익조정 정도 또한 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길어진다는 것은 감사인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의 발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불일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감사인이 노력이 증가하더라도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감사인이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회사의 경영자와 타협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감사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2를 기각하여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증가할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의 관계

$$\text{회귀모형 : } DA_{it}(ABSDA_{it}) = \beta_0 + \beta_1 dfdate_{it} + \beta_2 lnasset_{it} + \beta_3 cfod_{it}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ta1 + IND + DY + e$$

구 분	[모형1] 종속변수 : DA	[모형2] 종속변수 : ABSDA	[모형3] 종속변수 : ABSDA DA가 음(-)인 경우	[모형4] 종속변수 : ABSDA DA가 양(+)인 경우
변수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절편	0.037 (6.06)***	0.105 (11.42)***	-0.003 (-0.42)	0.065 (8.44)***
dfdate	0.007 (1.48)	0.021 (2.87)***	0.001 (0.20)	0.016 (2.78)***
lnasset	-0.001 (-2.09)**	-0.005 (-8.57)***	-0.001 (-1.34)	-0.002 (-4.27)***
cfod	-0.879 (-157.85)***	0.152 (18.05)***	0.763 (88.40)***	-0.657 (-63.00)***
lev	0.024 (11.70)***	0.062 (20.19)***	0.005 (1.61)	0.035 (14.10)***
roa	0.396 (107.41)***	-0.166 (-29.76)***	-0.387 (-87.78)***	0.248 (35.22)***
ta1	-0.022 (-8.84)***	-0.028 (-7.35)***	0.009 (2.90)***	-0.024 (-7.57)***
표본크기	6,048	6,048	2,880	3,168
F 값	2,224.00***	165.22***	1,020.87***	396.95***
Adj. R ²	0.8152	0.2458	0.8096	0.6000

주1) 변수의 정의

DA : 재량적 발생액/기초총자산 (ABSDA : DA의 절대값)

dfdate :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lnasse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cfo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lev : 부채총액/기초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ta1 : 전기총발생액

IND : 산업별 더미변수

DY : 연도별 더미변수

2) dfdate : 실증분석에서는 단위조정을 위해 100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음

3)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DY)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지만, 보고는 생략함

4) VIF 계수 : 전체 2미만

5) 표본크기(기업/연도) : 모형1(6,048), 모형2(6,048), 모형3(2,880), 모형4(3,168)

6)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총자산의 자연로그값(lnasset) 변수의 경우, [모형1]과 [모형2]의 방향이 모두 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cfod) 변수 또한 [모형1]과 [모형2]에서 각각 음(-)과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lev)의 경우 [모형1]에서는 양(+)의 방향을 나타내며 1%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2]의 경우 또한 [모형1]과 같이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1%수준

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총자산 수익률(roa) 변수의 경우에는, [모형1]에서 양(+)의 방향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계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모형2]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 총발생액(ta1)의 경우 [모형1]과 [모형2]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방향에 따라 이익조정과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3]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음(-)인 경우의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이고, [모형4]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양(+)인 경우의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형3]과 [모형4]를 종합하여 보면, 재량적 발생액이 음(-)인 경우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변수(dfdate)의 회귀계수가 양(+)의 방향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재량적 발생액이 양(+)인 경우,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변수(dfdate)의 회귀계수가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1%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의 이익조정, 즉 이익의 상향조정이 일어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위험평가 수준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기울여 감사보고서 공시가 지연됨에도 재량적 이익조정을 감소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익조정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협상지연으로 감사보고서 공시가 지연되는 현상을 확인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의 재무보고품질이 여타의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시장구분에 따른 감사시차 및 발행시차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

<표 7>은 시장구분 및 재량적 발생액의 방향에 따른 감사시차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관심변수인 감사시차(rdate)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DA)이 음(-)인 경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만 10%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재량적 발생액(DA)이 양인 경우에도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만 5%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이 음인 경우와 양인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규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국내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감사의 질도 매우 높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분석가가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으며 재무분석가 보고서도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적게 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준의 차이가 재무보고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시장구분 및 재량적 발생액의 방향에 따른 감사시차와 이익조정의 관계

$$\text{회귀모형 : } ABSDA_{it} = \beta_0 + \beta_1 rdate_{it} + \beta_2 Inasset_{it} + \beta_3 cfod_{it}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ta1 + IND + DY + e$$

구 분	[모형1] DA가 음(-)인 경우		[모형2] DA가 양(+)인 경우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변수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절편	0.031 (1.54)	0.004 (0.47)	0.041 (2.23)**	0.037 (4.15)***
rdate	-0.015 (-1.82)*	0.007 (0.99)	-0.015 (-1.92)**	-0.004 (-0.65)
Inasset	-0.003 (-1.71)*	-0.002 (-3.03)***	0.001 (0.46)	0.000 (-0.71)
cfod	0.746 (60.92)***	0.810 (65.64)***	-0.645 (-43.55)***	-0.696 (-50.49)***
lev	0.002 (0.44)	0.011 (2.82)***	0.035 (10.03)***	0.032 (9.37)***
roa	-0.381 (-66.12)***	-0.412 (-45.95)***	0.225 (23.81)***	0.340 (29.21)***
ta1	0.002 (0.46)	0.025 (4.75)***	-0.020 (-5.20)***	-0.061 (-7.68)***
표본크기	1,526	1,354	1,684	1,484
F 값	566.16***	404.73***	184.54***	262.99***
Adj. R ²	0.8164	0.7817	0.5669	0.6795

주1) 변수의 정의

DA : 재량적 발생액/기초총자산 (ABSDA : DA의 절대값)

rdate : 감사시차

Inasse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cfo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lev : 부채총액/기초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ta1 : 전기총발생액

IND : 산업별 더미변수

DY : 연도별 더미변수

2) rdate : 실증분석에서는 단위조정을 위해 100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음

3)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DY)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지만, 보고는 생략함

4) VIF 계수 : 전체 2미만

5)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표 8>은 시장구분 및 재량적발생액의 방향에 따른 감사보고서 발생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관심변수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는 코스닥시장을 표본으로 한 분석에서만 재량적발생액이 음(-)인 경우에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재량적 발생액이 양(+)인 경우는 5%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표 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시장에서 규제의 수준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정보해석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무보고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8> 시장구분 및 재량적 발생액의 방향에 따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의 관계

$$\text{회귀모형 : } ABSDA_{it} = \beta_0 + \beta_1 dfdate_{it} + \beta_2 Inasset_{it} + \beta_3 cfod_{it}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ta1 + IND + DY + e$$

구 분	[모형1] DA가 음(-)인 경우		[모형2] DA가 양(+)인 경우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변수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절편	0.019 (0.94)	0.011 (1.22)	0.028 (1.52)	0.034 (3.96)***
dfdate	0.017 (1.77)*	-0.011 (-1.48)	0.021 (2.36)**	0.003 (0.51)
Inasset	-0.002 (-1.66)*	-0.002 (-3.19)***	0.001 (0.50)	0.000 (-0.69)
cfod	0.747 (61.10)***	0.810 (65.68)***	-0.645 (-43.56)***	-0.696 (-50.46)***
lev	0.002 (0.40)	0.011 (2.90)***	0.035 (10.03)***	0.032 (9.34)***
roa	-0.380 (-65.90)***	-0.412 (-46.15)***	0.226 (23.96)***	0.341 (29.40)***
ta1	0.002 (0.47)	0.025 (4.73)***	-0.020 (-5.12)***	-0.061 (-7.67)***
표본크기	1,526	1,354	1,684	1,484
F 값	566.07***	405.19***	184.91***	262.94***
Adj. R ²	0.8164	0.7819	0.5673	0.6794

주1) 변수의 정의

DA : 재량적 발생액 / 기초총자산 (ABSDA : DA의 절대값)

dfdate :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Inasse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cfo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lev : 부채총액 / 기초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ta1 : 전기총발생액

IND : 산업별 더미변수

DY : 연도별 더미변수

2) dfdate : 실제분석에서는 단위조정을 위해 100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음

3)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DY)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지만, 보고는 생략함

4) VIF 계수 : 전체 2미만

5)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4. 추가분석 : 감사인 규모별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DeFond and Jambalvo(1993)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연구결과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달리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종성과 최기호(2001)는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Big4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하거나 재량적 발생액이 작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에 박종일 등(1999)은 Big6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합해 보면 외국의 경우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진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다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9>는 감사인의 규모에 따른 더미변수인 auditor변수를 주요관심변수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 감사시차(rdate)에 각각 상호작용항을 취하여, 규모에 따른 각각의 변수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주요관심변수인 auditdfd, auditrd 변수는 각각 Big4 회계법인인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auditor 변수와 감사보고서 발행시차(dfdate), 감사시차(rdate)변수와 상호작용항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Big4 회계법인일 경우 Non-Big4 회계법인일 경우에 비하여 각각의 시차가 재량적발생액(DA)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Panel A는 재량적 발생액(DA)이 양(+)인 3,168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주요 관심변수인 auditdfd, auditrd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Panel B는 재량적 발생액(DA)이 양(+)이고, 동시에 코스닥 상장인 경우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주요 관심변수인 auditdfd, auditrd, auditrd 변수 모두 Panel A와 동일하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감사인의 규모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경우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재무보고품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감사인 규모에 따른 차이
(DA 양(+))인 경우, 코스닥 상장인 경우

$$\text{회귀모형 : } DA_{it} = \beta_0 + \beta_1 dfdate_{it}(rate_{it}) + \beta_2 auditor_{it} + \beta_3 auditdfd_{it}(auditrd_{it}) \\ + \beta_4 lnasset_{it} + \beta_5 cfod_{it} + \beta_6 lev_{it} + \beta_7 roa_{it} + \beta_8 ta1 + IND + DY + e$$

변수	DA가 양(+)인 경우		DA가 양(+)이고, 코스닥 상장인 경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절편	0.067 (8.43)***	0.085 (9.88)***	0.039 (2.09)**	0.058 (3.07)***
dfdate (rdate)	0.026 (3.03)***	-0.020 (-2.60)***	0.030 (2.54)**	-0.024 (-2.26)**
auditor	0.007 (2.43)**	-0.001 (-0.34)	0.010 (2.26)**	0.008 (0.98)
auditdfd (auditrd)	-0.012 (-1.07)	0.012 (1.22)	-0.003 (-0.19)	0.002 (0.13)
lnasst	-0.002 (-4.99)***	-0.002 (-5.21)***	-0.000 (-0.42)	-0.000 (-0.47)
cfod	-0.657 (-63.09)***	-0.657 (-63.06)***	-0.646 (-43.83)***	-0.647 (-43.84)***
lev	0.035 (14.24)***	0.035 (14.31)***	0.035 (10.23)***	0.036 (10.24)***
roa	0.247 (35.15)***	0.246 (34.82)***	0.226 (24.04)***	0.224 (23.85)***
ta1	-0.023 (-7.52)***	-0.024 (-7.67)***	-0.019 (-5.06)***	-0.019 (-5.17)***
표본크기	3,168	3,168	1,684	1,684
F-값	341.74***	3470.93***	160.92***	160.56***
Adj. R ²	0.6010	0.6004	0.5709	0.5703

주1) 변수의 정의

- DA : 재량적 발생액(종속변수)
- dfdate : 감사보고서 발행시차
- rdate : 감사시차
- auditor : Big4 감사법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auditdfd : auditor더미변수와 dfdate변수의 상호작용항
- auditrd : auditor더미변수와 rdate변수의 상호작용항
- lnasset : 기말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cfo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 lev : 부채총액 / 기초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 IND : 산업별 더미변수
- DY : 연도별 더미변수

- 2) dfdate, rdate : 실제분석에서는 단위조정을 위해 100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음
- 3)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DY)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지만, 보고는 생략함
- 4) */**/** :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5%/1%를 의미함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간의 차이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를 감사인의 추가 감사노력으로 보고 회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만약 회계발생이 이익조정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회계감사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확대하여 재량적 이익조정행위를 감소시킨다면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량적 발생액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회계발생에 대한 감사위험을 높이 평가하여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확대하더라도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감사보고서 공시시차와 재량적 발생액과는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량적 발생액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2004년부터 2010년에 걸쳐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 6,048(기업/연도)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모두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재량적 발생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감사의견 형성을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이후의 감사보고서 공시지연은 경영진과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보고지연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영진과의 의견불일치 해소를 위한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더라도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을 감소시키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 정도가 중요한 수준에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감사인의 노력이 재량적 이익조정행위에 대하여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회계감사인들이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의 증대와 이익조정가능성에 대하여 보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감사보고서 발행시 더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행위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보고서 공시가 여타의 기업보다 지연되는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일과 공시일간의 차이가 적정수준 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무제표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본을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특히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의 분석결과가 보다 강화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제표이용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감사인 규모에 따른 추가 분석에서는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와 이익조정 사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의 경우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재무보고품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감사보고서일과 결산일간의 시차인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반면에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 공시일간의 차이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가 재무보고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 널리 활용되는 대용치이기는 하지만, 추정식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이에 대한 오차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향후, 다양한 이익조정 대용치를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행시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업무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관련기업의 수나 영문 재무제표작성 여부 및 동일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는지 등을 함께 논의하면 업계의 관행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감사보고서 발행시차를 산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정정공시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이로 인해, 90일 이상의 차이일수를 보이는 표본을 실증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질적으로 정정공시일에 공시된 재무제표가 더 정확한 의미의 재무제표이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차이일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도공시일과 정정공시일의 차이일수 또한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감사시차와 발행시차를 각각 분석하고 있지만 감사시차와 발행시차를 동시에 고려하는 후속연구도 감사업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향후 과제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수영 · 신현걸 · 정재연. 2006.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 175 - 201.
- 김평기. 1996. “감사시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5권 : 83 - 108.
- 나종길 · 최기호. 2004. “회계발생의 수준이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179 - 204.
- 문상혁 · 지현미 · 최 관. 2005. “결산일 차이가 감사보수, 감사시간, 그리고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 135 - 166.
- 박종성 · 오윤숙 · 조은주 · 조은혜. 2011. “감사보고서 발행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종성 · 최기호. 2001. “차별적 감사수요와 자발적 감사인교체”.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 1 - 26.
- 박종일. 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 135 - 172.
- 박종일 · 이명곤 · 원정연. 1999.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품질 분석”. 회계와 감사연구 제35호 : 289 - 319.
- 박종일 · 최 관. 2006. “비정상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논문.
- 전규안 · 최종학 · 박종일. 2004.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143 - 177.
- Antle, R., and B. Nalebuff. 1991. “Conservatism and Auditor-Client Negoti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pp.31 - 54.
- Ashton, R. A., P. R. Graul, and J. D. Newton. 1989. “Audit Delay and the Timeliness of Corporate Reporting”.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5(2), pp.657 - 673.
- Ashton, R. A., J. J. Willingham, and R. K. Elliot. 1987. “An Empirical Analysis of Audit Dela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5(2), pp.275 - 292.
- Bamber, E. M., L. S. Bamber, and M. P. Schoderbek. 1993. “Audit Structure and Other Determinants of Audit Report Lag : An Empirical Analysi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2(1), pp.1 - 23.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pp.1 - 24.
- Claessens, S., S. Djanjov, and L. Lang. 1999.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pp.81 - 112.
- DeFond M., and J. Jiambalvo. 1993.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over Income - Increasing Accounting Method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 pp.415 - 443.
- Dopuch, N., R. Holthausen, and R. Leftwich. 1986. “Abnormal Risk Stock Returns Associated with Media Disclosures of ‘Subject to’ Qualified Audit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June), pp.93 - 118.

- Dyer, J. D., and A. J. McHugh. 1975. "The Timeliness of the Australian Annual Repor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pp.204 – 219.
- Givoly, D., and D. Palmon. 1982. "Timeliness of the Annual Earnings Announcements : Some Empirical Evidence". *Accounting Review*(July), pp.468 – 508.
- Hribar, P., and D. W. Collins. 2002.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1).
-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 pp.305 – 360.
- KPMG. 2004. "Oversight of Auditors : Audit Committee Roundtable Highlights". Auditor Committee Insights(Spring).
- Lennox, C., and Greece. 2006.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Effect". Working Paper. HKUST.
- Loudder, M., I. Khurana, R. Sawyers, C. Cordery, C. Johnson, J. Lowe, and R. Wunderele. 1992. "The Information Content of Audit Qualification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Spring), pp.69 – 82.
- Maria, H. S., P. A. Christopher, and C. H. Richard. 2007. " The Effect of Auditor's Use of a Reciprocity – Based Strategy on Auditor – Client Negotiations". *The Accounting Review*, 82(1), pp.241 – 263.
- Tamara, A., F. Joseph, and L. Keith. 2007. " Unintended Consequences of Accelerated Filings : Do Changes in Audit Delay Lead to Changes in Earnings Quality?". Working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Report Filing Lag and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Roh, Hee-Chun^{*} · Lim, Kyu-Han^{**} · Jeon, Young-Jun^{***}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frequent, repeated cases have been shown where stock prices of some stock-listed companies have repetitiously dropped due to reliability in financial statements and investors' worries about being delisted, as a result of submitting audit report in breach of the posting public announcement and not disclosing timely financial information to investors. Such are presumed to be mostly due to the disagreements between the management and auditors, causing a confusion among investors. Accordingly, it is judged to inform usefulness for investors to study the information effect of audit report filing lag on financial statements, namely information difference between the dates of the audit report disclosure and the completed audit report.

Regarding audit reporting, lots of prior researches have been perform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audit report lag, i.e. a time lag between audit report date and the closing day of the fiscal year. Another time lag exists between the dates of the audit report and the audit report disclosure because, in order to file the audit report after auditors' spot inspection, additional audit efforts are required for securing additional audit evidence, filing an audit report and deliberating internal mentality, etc. The auditors' additional audit time is understandably inevitable to some extent, but in case of exceeding the acceptable extension, the timeliness of official income disclosure might be damag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t report lag and discretionary accruals and between audit report filing lag and discretionary accruals, targeting the stock-listed firms in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and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Market from 2003—the year of legally obligated submission & disclosure of the audit report—until 2010.

A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report filing lag and discretionary accrual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 both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In other words, the delay in public announcement of audit report after securing adequate proof for the formation of auditors' opinion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porting delay due to disagreements with the management ; Concerning this, this study confirmed that an auditor failed to reduce management's discretionary earnings managements, despite an auditors' additional audit efforts for solving disagreements with the management. This study result shows that though the level of disagreements between auditors and the management which submits the audit report belatedly is in the significant level an auditors' effort failed to reduce the discretionary accruals owing to an intrinsic limit to the act of discretionary earnings management in solving this frict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ult reveals that the auditors in Korea are expanding their range of auditing or coping with more conservatively in filing audit reports by applying a conservative criterion to increase in the non—transparency of accounting profits and likelihood of earnings management, but it can be analyzed that such actual efforts fail to eliminate management's act of earnings management completely. Accordingly, from viewpoints of th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e audit report filing lag can be interpreted as an indicator of important information effects.

In addition, such a result also shows mo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especially in the analysis of the listed corporations on KOSDAQ, which suggests investors need to be more cautious in considering such corporations' financial statements. Additionally, the additional analysis of the auditors' scale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auditors' scale and audit quality. This analyzed result supports domestic researches which are showing inconsistent results on whether the audit quality depends on the auditors' scale, indicating that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doesn't vary according to the auditors' scale.

This study shows significant in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the audit report filing lag between the dates of the audit report and the audit report disclosure is influencing on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whereas the existing researches took a focused look at the influences on the audit report lag between audit reporting day and its settling day.

<Key words> audit report filing lag, audit report lag,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udit report, discretionary accruals